

2023년도 1학기 「일본 고문서로 보는 독도」 특강 성과보고서

담당교수	박 한 우 박(인)
참여자	허재수, 조선영, 박장효, 채송아, 박외숙, 이종협, 조수진, Anela
활동 목표	일본 측의 독도/다케시마 분쟁 인식에 대한 실체적 파악
활동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표적 갈등 중 하나이다. 양국 정부는 주로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 근거를 내세워 이 섬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왔다. - <독도, 지도의 증언>, <독도의 운명> 등 독도 관련 다크를 다수 제작해 온 포항MBC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제작지원을 받아 <독도 데이터 워> 다크멘터리 제작을 준비했고,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 파악과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BK21 사업단과 사이버감성연구소 연구원들과 협업해 독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.
활동 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문헌연구 및 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도 관련 문헌과 2023년 5월까지의 국내외 연구논문 조사 - 6월 7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 초청 <일본 고문서로 보는 독도> 특강 실시 2) 데이터 수집 및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글 트렌드를 활용한 독도, 다케시마 키워드로 언급량, 연관 검색어 추이 조사 - 트위터,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Quora 등 글로벌 지식 플랫폼에서의 독도/다케시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·의미망 분석 -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블로그(blog.jp) 사이트에서의 다케시마 관련 게시글을 수집 분석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파악.
활동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트위터,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Quora 등 글로벌 지식 플랫폼에서의 독도/다케시마 관련 게시물을 분석하여 한국인은 독도 문제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,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관심이 적고, 일부 극우파만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. - 한국뿐 아니라 일본 고문서에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근거 파악.
활동 의의 및 개선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히 문헌 연구자료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해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.